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up>st</sup>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http://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https://facebook.com/groups/yagfyn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 효주 (투스 평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o@gmail.com](mailto:seoulso@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44.918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mailto:stfrancisks@gmail.com)

[제1 독서] ..... 하바국 1,2-3;2,2-4

[화답송] ..... 시편 95(94),1-2.6-7.7.8.9 (◎ 7과 8)



- 어서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 주어서와 앞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떼로세. ◎

[제2 독서] ..... 2 티모 1,6-7.13-14

[복음 환호송] ..... 1 베드 1,25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바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 알렐루야.

[복음] ..... 루카 17, 5-10

[성가안내]

- 입당성가 [64] 이스라엘 들으라
- 봉헌성가 [220] 생활한 제물
- 성체성가 [165] 주의 잔치
- 파견성가 [271] 로사리오 기도 드릴때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말씀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 미 사 봉 헌

영미사	봉헌
이 정진 안토니오	선 명희 노아
이 정진 안토니오	강 호영 대건 안드레아
박 현진 스테파노	신명
박 현진 스테파노	이 수산나
박 현진 스테파노	민완준 필립보 민덕미 안젤라
박 현진 스테파노	강 호영 대건 안드레아
강 무강	강 호영 대건 안드레아
조 태연 안토니오	장 해라 마리 스텔라
윤 의호 안드레아	윤 동진 프란치스코
이 태환 바오로, 남 승주	이 정현 헬레나
이 용기 요셉	이 미숙 안나
생미사	봉헌
이 영애 레지나	한 동훈
편 윤아 루시아 가정	김 영희 클라라
박 기목 알버트, 박 민재 아녜스	신명
이 미숙 안나	이 지훈 아녜스
조 남록 미카엘, 조 성자 데레사 (축영명)	울리타 김경련
이 정주 소화 데레사 (영육 건강)	조 데레사
이 정주 소화 데레사	익명
이 병훈, 이지훈 아녜스	이 영애 레지나
이 지연 안나 레지나, 이 미진 조앤 그레이스	이 영애 레지나
이 로잔 캐더린	이 지훈 아녜스
양 미숙 마리아, 박 수진 줄리아	이 정현 헬레나
박 채영 소피아 (영육의 건강을 위하여)	김 보현 엘리사벳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 1	복사 2
10월2일	이지훈 아녜스	박기목 알버트	이경자 올리안나	이경자 올리안나	유정옥 유스티나	최예준 요한	양지수 클라라
10월9일	장혜윤 크리스티나	민완준 필립보	민덕미 안젤라	민덕미 안젤라	이영혜 안젤라		



김 효주 수녀님 환영 합니다.

우리 맨하탄 공동체에서  
 사목활동 하시면서 하느님겐 영광을  
 만나는 모든 신자들과는 행복과 기쁨 나누시길요 ~

● 축일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기도해요~

- 10.1 소화데레사 10.2 수호천사 10.4 프란치스코 10.5 파우스티나
- 10.6 브루노 10.7 목주기도의 성모 10.9 디오니시오 10.11 요한 23세
- 10.14 갈리스토 10.15 대 데레사 10.16 마르가리타 마리아알라코크
- 10.17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10.18 루카 10.20 십자가의 성 바오로
- 10.24 안토니오 마리아 클라렛 10.28 시몬, 유다(타데오)사도

● '하늘처럼' 성가대 단원 모집합니다.

'노래로 하는 하느님 찬양은 두 배의 기도'라는 어거스틴  
 성인의 말씀대로 함께 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 문 의: 노 데레사 917-692-6447

● 예비자 교리반 수강 신청 받습니다.

- 대 상 :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분들
- 문 의 : 2층 사무실
- 세례예정 : 2023년 예수 부활 대축일

● 2023년 견진 성사 신청 받습니다.

- 견진대상 : 2019년 이전에 세례받은 신자

● '십자가의 길' 10월 2일 (일)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장 소 : 뉴저지 'World apostolate of Fatime  
 674 MountainView Rd E. Asbury, NJ 08802
- 대 상 : 비 울뜨레아 회원들도 환영 합니다.
- 출 발 : 주일 미사 후 성당 앞

● 미 동북부 혼성 제2차 꾸르실료 교육 있습니다.

- 일 시 : 2022년 11월 3일 (목) ~ 11월 6일 (일)
- 장 소 : 뉴저지 St. Paul John II Retreat Center
- 대 상 : 영세 받은지 2년이상 경과된 신자로 본당 신부님 추천 필요
- 신 청 : 본당 울뜨레아 간사에게 문의
- 접 수 : 2022년 10월 25일 (화)까지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목주기도 성월 기도]

◆ 성모 찬송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 기도합니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목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단체모임 안내]

울뜨레아	첫째 주일 11:00 am	Conf.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요셉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D
연령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꾸리아	셋째 주일 11:00 am	Conf. Rm(1F)
성소후원회(양업회)	셋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령기도회	매주 화 6:00pm~7:00pm	Conf. Rm(2F)
예수성가정회(FYMNY)	넷째 주일 11:00am	교육관 1B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am	Conf. Rm(2F)
'신명' 풍물패	둘째,넷째 주일 2:00pm~	교육관 3A
예비자 교리반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3A
청년회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2A
하늘처럼 성가대	매 주일 8:30am~1:30pm	교육관 3B
청년 전례부	둘째 토요일 4:30pm	아랫성당
구세주의 모후 Pr.	매주일 8:00 am ~	교육관 1B
우리 즐거움의 원천 Pr.	매주일 10:30 am ~	Korean Conf. or 2D

[2022년 10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모든이에게 열린 교회'

언제나 복음에 충실하고 용기 있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연대와 형제애와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 공동 합의를 실천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 |                |            |
|----------------|------------|
| 김순한 (루시아)      | 김옥지 (아가다)  |
| 이경희 (미카엘라)     | 김동희 (헬레나)  |
| 정창동 (폴리나)      | 지군자 (스테파니) |
| 진정은 (마리아)      | 이진자 (세실리아) |
| 고종호 (마태오)      | 이병국 (요한)   |
| 이경봉 (요셉 그레고리오) | 박명순 (모니카)  |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ISC NEW YORK**  
International Student Consulting  
졸업/OPT 후 진로고민 및  
진학/취업/자기소개서/면접준비 무료상담  
iscnewyorkmetro@gmail.com  
1-917-386-7405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원조 WONJO**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1AM-11PM /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212-594-7773  
646-808-7322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212-203-0072  
Kakaotalk ID: nycacu

광고주를 찾습니다  


광고주를 찾습니다  


## 오늘의 복음 묵상

(루카 17, 5-10)

루카가 전해주는 오늘 복음은 '믿음의 힘', '겸손하게 섬겨라.' 이야기입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청원은 믿음이 약한 우리들의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너희가 겨자씨 한알만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나무더러 '뽕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겨자씨로 비유될 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이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크거나 양을 따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이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믿는가? 믿지 않는가?

오늘 제1독서 하바쿵 예언서는 '예언자가 탄원하다', '주님께서 다시 응답하시다' 이야기입니다. 예언자가 주님께 탄원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살려 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까? 당신께서 구해 주지 않으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폭력이다!' 하고 소리쳐야 합니까?"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이 패망하기 직전 혼란의 시기에 하바쿵은 활동 했습니다. 그의 질문에 주님께서 환시로 답하셨습니다. "너는 환시를 기록하여라. 누구나 막힘없이 읽어 갈 수 있도록 판에다 분명하게 써라. .... 지금 이 환시는 정해진 때를 기다린다. 늦어지는 듯하더라도 너는 기다려라. 그것은 오고야 만다. 지체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오늘 제2독서 티모테어오 2서는 '감사와 격려' 이야기입니다. 바오로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대가 맡은 그 훌륭한 것을 지키십시오." 바오로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신의 믿음을 본보기로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오늘 복음의 끝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정성과 사랑으로 주인을 섬기는 종의 태도로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음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은총으로 믿기 시작하고 은총으로 믿음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 한 상만 토마스 신부 -

## '작음을 무시하고 폐기하는 문화에 대처하기'

작음을 무시하고 푸대접하며 등 뒤로 내던져 버리는 폐기의 문화와 결연히 맞서 맞서 싸워야겠습니다.

존경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이름으로 반포된 권고나 회칙, 강론들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틈만 나며 수시로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작고 가난한 이들을 찾아 교회 밖으로 나가는 가난한 교회!

2013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교구장 호세 베르골료 추기경이 교황으로 선출되자, 누구보다도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부에노스 아이레스 외곽 빈민가 주민들이었습니다.

빈민가 주민들은 자신들을 향한 베르골료 추기경의 아버지 같은 모습과 따뜻한 마음에 언제나 큰 감동을 받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부활이나 성탄 때는 빈민가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려고 방한칸짜리 자신의 서민 임대 아파트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날랐습니다.

곰곰이 따지고 보니 교황님의 노선은 작고 연약하며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신 예수님의 노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 유다 사회 안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 역시 한 인간 존재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교황님의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이 시대 내후한 폐기 문화입니다. 모든 잣대가 생산성, 효유성 위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산성 면에서 뒤쳐지는 노인들, 장애인들, 환자들, 약자들, 어린이들이 무참히 짓밟히고 폐기되고 있음을 안타까워 하십니다.

작은 것도 분명 가치와 의미가 있음을 세상에 외쳐야겠습니다. 작음을 무시하고 푸대접하며 등 뒤로 내던져버리는 죽음의 문화, 폐기의 문화와 결연히 맞서 싸워야겠습니다.

- 양 승국 스테파노 신부, 살레시오회 -